

# 기획·콘텐츠 2본부 체제... 융복합문화 싱크탱크로

## 내달 출범 아시아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뒷받침할 아시아문화원이 오는 8월 출범한다.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정부 기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핵심기관이다.

김성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출범할 아시아문화원의 조직과 업무와 문화전당 개관준비 상황을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확대 개편해 출범하는 아시아문화원은 2본부(기획운영본부·콘텐츠 운영본부)로 구성되며 산하에 아시아문화연구소와 창·제작센터를 두게 된다. 이들 기구는 융복합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하기 위한 싱크탱크다.

아시아문화연구소와 창·제작센터는 애초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정보원과 문화창조원에 있던 기구였으나, 아시아문화원의 콘텐츠 창작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를 이관하게 됐다.

아시아문화원은 또 전당 운영 및 수익사업 일부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아시아문화원은 오는 8월께 설립이사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아시아문화원은 원장(이사·비상임)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원장선임 절차

## 아시아문화개발원 확대 개편 문화연구소·창제작센터 신설 정원 200여명 확보 노력

는 9월이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측은 아시아문화원 정원 200여명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억제정책에 따라 100여명 안팎으로 정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개관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원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개관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측은 문화전당 개관(9월4일) 행사의 주제를 “아시아 문화융성, 그 시작”으로 정하고 오는 9월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시민과 함께하는 전야제 및 개관 축하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 기간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에서는 대만 출신 작가 차이밍량의 ‘당나라 승려’를 비롯해 모두 33편의 공연물을 순차적으로 무대에 올린다.

김성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문화전당 개관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되, 문화전당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10년만에 새 단장 끝낸 옛 전남도청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될 옛 전남도청이 새단장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건물의 외벽은 80년 광주항쟁 당시 모습을 살려 흰색으로 단장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천정배 진영 ‘젊은 DJ’ 인재풀 구체화

## “법조·금융·벤처사업가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 확보” 오늘 정치개혁 등 주제 간담회 후 주말에 팟 캐스트 방송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에 이어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진영이 젊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인재풀을 구체화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서울에서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나선 청년 그룹과 정치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법조인, 금융인, 다국적 기업 임원, 벤처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로 알려졌다. 이들과의 간담회는 녹화를 거쳐 인터넷 팟 캐스트 형식으로 이번 주말 방송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천 의원이 공언한 ‘젊은 DJ’ 그룹의 일부로 알려져 인재풀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낳

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천 의원은 22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많은 젊은 세대들과 접촉했으며 일정 부분 ‘젊은 DJ’의 인재풀이 구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젊은 DJ 인재풀은 광주, 전남 등 호남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정치세력화에 이어 신당 창당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 진영의 핵심 관계자도 “현재 30여명의 젊은 DJ 인재풀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사회 각 분야에 전직하는 인사들을 위주로 최소 50명 이상의 젊은 DJ 인재풀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젊은 DJ

의 인재풀을 공개한다면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젊은 DJ와 함께 사회적 경륜을 쌓은 50~60대 인사들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총선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들과 맞설 젊은 DJ 후보들은 내부 논의와 외부 평가 등 상당한 숙성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창출을 위한 야권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의원과 함께 정치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염동연 전 의원은 “야권 재편을 통한 정권 창출은 거대한 민심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권 창출의 초석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수북한 가지엔 잘게 붉은 꽃을 잘라 붙였네



(119) 백일홍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 하였습니다/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성복 작 ‘그 여름의 끝’중에서>

한 여름 백일홍 붉은 꽃이 한창이다.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찾아온 태풍 ‘찬홈’과 ‘남카’의 위력 앞에서도 끄덕하지 않고 피어난 모습이 참 화사하다. 요즘 백일홍은 가까운 사철이나 공원, 길가에 나란히 심는 경우가 많지만 조

선시대만 해도 고관대작의 정원에 주로 심었다고 한다. 그 까닭에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사랑받는 꽃이었고, 옛글에도 자주 등장하게 된다.

풍속화가 해원 신윤복(1758~?)의 작품 ‘소년 전홍(少年 前紅)’(1758년 작)은 장숙 문 청년이 여인의 손목을 은근히 끌어 잡고 있어 남녀의 연정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꼽힌다. 배경으로 지나치기 마련인 큰 괴석과 세 그루의 백일홍이 우연히도 시선을 잡아끌었다. 해원의 풍속 화가다운 면모는 빼어난 인물묘사에 있고, 풍속화는 상황 설정만으로도 그림 읽는 재미가 컸던 탓에 그 동안에는 그림 속 풍경을 무시해 지나쳤던 것 같다.

오른쪽 상단의 화제 “빼곡한 앞엔 농염하게 푸른 빛 쌓였는데/수북한 가지엔 잘게 붉은 꽃을 잘라 붙였네(密葉濃堆綠/繁枝碎剪紅)”도 백일홍을 묘사한 글이다. 미술사학자 최원수선생(간송



신윤복 작 ‘소년 전홍’(1758년)

미술관 관장)이 그림의 제목을 ‘소년이 붉은 꽃을 꺾다’라는 뜻으로 ‘소년 전홍’이라 한 것도 화제를 풀어서 붙인 것이라 한다. 따지고 보면 이 그림에서 백일홍이야말로 배경이 아니라 상징적인 소재였던 것이다.

해원은 김홍도의 화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며 보다는 세상사 즐거움과 남녀간의 로맨스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세태 풍자나 인간 본연의 심성을 감추지 않은 노골적인 연속도를 즐겨 다뤘던 해원은 그 이유로 도화사에서 쫓겨났다고 전해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레이저 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토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無출혈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백원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